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문경 오미자 축제서 농지은행사업 홍보

✎ 김철희 기자 | ㉠ 승인 2025.09.19 16:13



문경 오미자 축제장을 찾은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제공

[문경(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문경지사(지사장 김종학)는 19일 동로면 금천둔치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문경 오미자 축제' 행사장을 찾아 축제 방문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했다.

이번 축제는 최고품질 오미자 특산물 판매, 다양한 체험 활동, 초청 가수 축하공연 등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이뤄져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문경지사 직원들은 행사장을 방문한 방문객과 오미자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펼쳤다.

김종학 문경지사는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행사장을 찾아 홍보하며 공사 사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뜻깊고, 공사에서도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상생하며 지역 농업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